

‘선거구 획정’ 2월 임시국회...갈 길 먼 민생입법

민주 “현안 마냥 못 미뤄”·한국 “총선 무리수 안돼” ‘패스트트랙 양금’ 냉기류...최소 의사일정 소화 전망

정지권이 총선 모드로 전환된 가운데 선거구 획정 및 민생입법 처리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이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4·15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만큼 2월 한 달간 임시국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여야간 냉기류가 여전한 만큼 최소의 의사일정만을 소화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입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민생입법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 소집을 제안한 상태다. 선처리 대상 민생입법은 미세먼지법과 지방자치법, 노사관계조정법 등 130여건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엇이 실제 처리해야 할 법안인지는 철저히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견제하겠다는 태세다. 더구나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

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과 각종 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도 ‘양금’이 여전한 상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4+1끼리 협의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전하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에 난상이 예상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표류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여야간 이렇다 할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2월 26일부터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막판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주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일단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환자대기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한폐렴 확산세 엄중 인식...차단 중요”

정 총리, 보라매병원서 점검...“선제적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발 우한 폐렴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확산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모두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보라매병원을 찾아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

후군) 때의 경험으로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복지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정보공유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도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이동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미리 연락하는 등 확산방지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날 방문은 우한 폐렴이 여러 나라로 빠르게 확산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감염병의 지역사 차단의 최전선인 지역 의료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정 총리는 선별진료소에서 감염관 보라매병원장으로부터 대응상황을 보고받은

뒤,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병원 응급실 내 격리병상과 감염병동 내 음압장비와 격리병상 등을 차례로 살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설 연휴에도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의 보라매병원 방문에는 박승호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동행했다. 앞서 정 총리는 연휴 첫날이자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검역태세를 직접 점검한 뒤 같은 날 긴급 관계기관회의를 주재해 검역 강화 등의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민주, 공천심사 본격화...하위 20% 개별통보

내일 후보 공모 마감...단수추천·경선·전략지역 지정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민주당은 28일까지 후보 공모를 마치고 30일부터 서류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류심사는 내달 5일까지 진행되고, 이후에는 면접(2월 7~10일) 등이 계획돼 있다.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총선 예비후보의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등을 심사한다. 공관위는 심사결과에 따라 단수추천 내지 후보추천을 위한 경선 여부 등을 판단한다.

민주당은 가급적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지역 특수성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전략지역(전략공천 검토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략공천관리위는 후보 공모가 끝난 뒤 회의를 하고 2차 전략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당비를 납부하는 관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선에서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은 가점을 받지만, ‘하위 20%’ 평가

를 받은 현역의원들은 20% 감산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관련, 원혜영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8일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개별통보를 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27일 “하위 20%가 공천배제는 아니지만, 경선에서 상당히 불리한 것도 사실”이라며 “적지 않은 의원들이 경선 관문을 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만큼 몰락이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만간후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 직능단체 대표 등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선대위도 띄울 예정이다. /연합뉴스

총선 도전 이색정당들 창당 줄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대...창준위 15개 등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이번 4·15 총선에서 기색정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색정당들이 속속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 2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완료하고 활동 중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총 15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등록된 창준위만 6개에 이른다. 페티병살리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해왔던 ‘가치환경보호당’ 창준위 권기재 대표는 ‘탈이념·친환경’을 내세웠다. 권 대표는 총선 목표 의식에 대해 지역구 5석, 비례대표 5석 등 총 10석이라고 말했다. ‘같이오름’ 창준위 김재섭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창당 준비를 해왔다”며 “기존 정치권이 미래의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당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용진 대표는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률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혼미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1일 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한 ‘브랜드뉴파티’ 창준위는 조국 전 법무 장관 임명 사태를 거치며 ‘부패한 진보’와 ‘뻔뻔한 보수’에 환멸과 염증을 느낀 2040모임으로 출발했다. 과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조성은 뉴파티 창준위 대표는 “뉴파티는 무능한 정치권력을 교체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수통합 열차 ‘빅 이벤트’ 관심 혁동위 “합류 선언 이어질 것”

4·15 총선을 향해 바빠 달리고 있는 보수통합 열차가 설 연휴 기간 비공식적인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달 안에 ‘빅 이벤트’가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당당 통합 협의체,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동위)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모두 공식회의 없이 ‘잠행’했다. 그러나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뤄야 하는 만큼 세간의 관심이 멀어진 이 기간에 오히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해온 한 한국당 의원은 27일 “연휴 중에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혁동위의 한 관계자는 “28일부터는 지금까지 혁동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도·보수 세력의 보수통합 합류선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